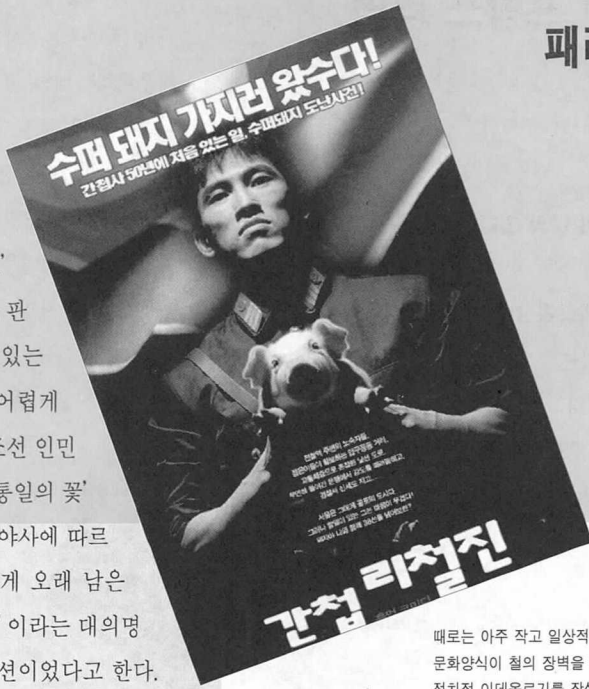


패러디로 가볍게 넘어선 정치적 금기

현대 자동차 아반테 린번의 광고

마정미 | 광고평론가



때로는 아주 작고 일상적인 문화양식이 철의 장벽을 부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잠식한다.

한때 '임수경의 티셔츠'가 이슈가 된 적이 있다. 판문점을 통하면 지적에 있는 평양을, 제3국을 통해 어렵게 잠입한 임수경씨는 북조선 인민공화국에서 그야말로 '통일의 꽃'이었다. 그런데 떠도는 야사에 따르면, 북한의 젊은이들에게 오래 남은 것은 '통일'이나 '민족'이라는 대의명분보다 이 여학생의 패션이었다고 한다. 주석 면담을 비롯해 많은 공식행사에서 임수경은 흰색 면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는데, 우리에게도 대학생의 평상복쯤으로 여겨지는 이 입성이 그쪽에서는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모양이다. 이 패션은 곧 북한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이 되었다 한다.

패러디를 패러디한 광고

때로는 아주 작고 일상적인 문화양식이 철의 장벽을 부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잠식한다. 현대자동차 아반테 린번 CF를 보며 떠오르는 단상들이다. 드디어 광고에서도 북한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광고는 영화 <간첩 리철진>을 패러디한 광고다. 영화에서는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슈퍼 돼지' 탈취를 위해 남파됐지만, 광고에서는 린번 엔진을 훔치기 위해 남파된 것. 평양에서 금강산까지 한번에 왕복할 수 있는 린번 엔진을 확보하면 북한의 에너지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간첩 리철진으로 연기했던 유오성이 린번 엔진을 훔친 공로로 북한 관리들의 박수를 받고 인민가수의 축가로 분위기가 고조된다. 결말은 이 모든 것이 간첩의 꿈이었던 것으로 마무리된다.

그동안 <남북의 창>류의 북한 관련 프로그램

에서 봐온 억양과 사투리가 짜깁기된 이 광고에는 영화 <간첩 리철진>의 페이스소스(pathos)와 비장미는 사라지고 없다. 희화화된 북한 관료들과 익살스러운 상황, 배경의 촌스러움만이 웃음을 자아낸다. 분류하자면 유머소구, 패러디 광고다. 알다시피 패러디 광고는 90년대 들어 상당히 급증했는데, 이유인즉, 그 기법에 따르는 이점이 많기 때문이다. 시청자들에게 친숙해진 화면은, 이미 인지된 지각의 향상성을 기호화해 다중적인 이미지를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 광고에는 이중의 패러디 과정이 들어 있어 재미있다. 린다 허천의 <패러디 이론>(문예출판사)에 따르면 패러디는 "희소성이 있고 유일하며 가치 있는 진품성을 풍자를 통해 여지없이 의문시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애초에 영화 <간첩 리철진>은 우리 사회의 통념과 반공의식을 뒤집은, 아이러니와 패러디로 구성된 텍스트다. 이를 다시 패러디한 광고는 어떤 모양일까. 부정의 부정은 긍정인가? 사실 광고에서 본래적인 패러디의 정신을 찾는 것은 무리다. 광고의 패러디는 '차이를 통한 반복'이나 '비평적 아이러니'를 지녔다기보다는 풍자, 혹은 혼성모방에 가깝다. 그래서 광고에는 유머와 공허한 불거리

화제의 영화 <간첩 리철진>을 패러디한 현대자동차 아반테 린번 광고는 소재의 제약을 파괴했다는 점에서 많은 것을 시사한다. 우리 광고계에서 북한은 하나의 금기였던 것이 사실. 하지만 이번 광고를 통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북한을 금기시할 필요가 없다는 사회적 합의를 암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만이 남는다. 기 드보르가 <스펙터클의 사회>(현실문화연구)에서 말했듯이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역사와 시간 개념조차 스펙터클로 녹아든다.

남북의 감정적 교류의 실마리 보여줘

그러나 중요한 것은 텍스트 밖에서의 맥락(context). 아반테 린번의 경우 남북의 감정적 교류의 실마리를 보여준다는 것에 성과가 있다. 사실 '북한'은 지금까지 광고제작에서 금기로 여겨져 온 소재다. 종종 광고에서 금기에 도전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주로 관습을 깨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주창이고, 그 목적은 새로운 소비주체의 아이덴티티 부여에 있다.

사회의 스테레오 타입에 가장 충실한 광고에 북한이 등장한 것은 더 이상 북한에 관한 이야기가 금기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의 유머소구 광고로 대중의 인식이 바뀔 수 있다. 문화와 문화 생산물은 정치적 장벽을 가볍게 넘는다. 그리고 그것은 임수경의 티셔츠처럼 물결로 나타나기도 한다. 조만간 서울에서 평양까지 아반테 린번으로 갈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정주영 회장의 소떼가 뒹아 놓은 그 길에. ●